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암톨쩌귀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수톨쩌귀의 뾰족한 부분을 끼우도록 구멍이 뚫린 돌쩌귀.

문헌의 첫 기록	수록 용례	수록 내용
18세기	9개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5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암톨쩌귀'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수톨쩌귀의 뾰족한 부분을 끼우도록 구멍이 뚫린 돌쩌귀.

암톨쩌귀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암톨쩌귀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암돌져귀 사전 표기 요약	—	—	—	● →	● →	—
암톨쩌귀 사전 표기 요약	—	—	—	—	—	● →
암돌젹귀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암돌쏙의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암돌쩌귀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4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암돌져귀

18세기19세기

- 암톨쩌귀
  20세기현재
- 암돌젹귀
  19세기
- 암돌쏙의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5종
암돌져귀, 암돌젹귀, 암돌쏙의, 암톨쩌귀, 암돌쩌귀

암톨쩌귀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암톨쩌귀'의 옛말인 '암돌져귀'는 18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암돌져귀'는 암컷을 뜻하는 명사 '암'과 문설주에 달아 쓰는 쇠붙이를 뜻하는 명사 '돌져귀'가 결합한 것이다.

표기 방식과 특징

19세기에는 '암돌져귀'를 중철 표기한 '암돌젹귀'가 나타난다.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20세기에 '암돌쏙의', '암톨쩌귀', '암돌쩌귀'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암톨쩌귀'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표기와 소리의 특징

'암돌쏙의', '암톨쩌귀', '암돌쩌귀'는 '암돌져귀'의 제3음절 초성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고, 이 중 '암돌쏙의'는 제4음절의 초성 'ㄱ'을 앞 음절의 종성으로 올려 적은 표기이다. '암톨쩌귀'는 '암' 뒤에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다른 단어들에 유추된 것으로 보인다.

문헌 속의 암톨쩌귀

전체 용례 9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8세기 암돌져귀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암돌져귀

출처 1728 청구영언 진본 62ㄴ

용례 01

문헌 용례

고모장지 셰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ᄇᆡ목걸새 크나큰 쟝도리로 쑹닥 바가 이 내 가슴에 窓 내고쟈.

현대어 풀이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톨쩌귀, 수톨쩌귀, 배목걸쇠를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출처 1728 청구영언 진본 64ㄴ

용례 02

문헌 용례

고모장ᄌᆞ 셰살장ᄌᆞ 가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져귀 수돌저귀 ᄇᆡ목걸새 쑥닥 박고 龍 거북 ᄌᆞ물쇠로 수기수기 ᄎᆞ엿ᄂᆞᆫ듸.

현대어 풀이

고모장지, 세살장지, 가로닫이, 여닫이에 암톨쩌귀, 수톨쩌귀, 배목걸쇠를 뚝딱 박고 용, 거북 자물쇠로 꼭꼭 채웠는데.

19세기 암돌져귀, 암돌젹귀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암돌져귀, 암돌젹귀

출처 1897 한영자전 PART Ⅰ:6

용례 03

문헌 용례

암돌져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40 춘향전 단:17ㄱ

용례 04

문헌 용례

쏘 그러치 못ᄒᆞ거든 널낭 죽어 암돌져귀 되고 날낭 죽어 수돌져귀 되여 분벽ᄉᆞ창 열 졔마다 졔 궁게 졔 쇠가 박혀

현대어 풀이

또 그렇지 못하거든 너는 죽어 암톨쩌귀 되고 나는 죽어 수톨쩌귀 되어 분벽사창 열 때마다 제 구멍에 제 쇠가 박혀

출처 1864 남원고사 2:27ㄴ

용례 05

문헌 용례

그러치 못ᄒᆞ거든 널낭 죽어 암돌젹귀 되고 날낭 죽어 슛돌젹귀 되여 분벽ᄉᆞ창 열 졔마다 졔 궁게 졔 쇠가 박혀

현대어 풀이

그렇지 못하거든 너는 죽어 암톨쩌귀 되고 나는 죽어 수톨쩌귀 되어 분벽사창 열 때마다 제 구멍에 제 쇠가 박혀

20세기 암돌쏙의, 암톨쩌귀, 암돌쩌귀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암돌쏙의, 암톨쩌귀, 암돌쩌귀

출처 1929 조선일보 3월 30일 3면

용례 06

문헌 용례

암돌쏙의 수돌쏙의 雙排白 외걸쇠를 큰나큰 장도리로 쑥박 닥아 이 내 가삼에 窓 내고저

현대어 풀이

암톨쩌귀, 수톨쩌귀, 쌍배목, 외걸쇠를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출처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용례 07

문헌 용례

암톨쩌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57 큰사전

용례 08

문헌 용례

암돌쩌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57 큰사전

용례 09

문헌 용례

암톨쩌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암톨쩌귀 관련 낱말



- 돌쩌귀명사문짝을 달기 위해 한쪽은 문틀에 다른 한쪽은 문짝에 고정시키는 쇠붙이.관련된 말의 뜻기초사전에서 읽기 ↗

뜻풀이: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암톨쩌귀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암톨쩌귀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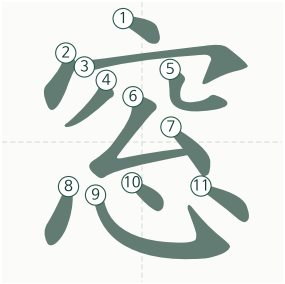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窓

뜻·음 창 창

총 11획 · 부수 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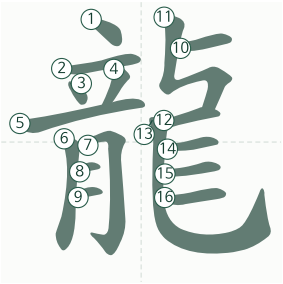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窓/

龍

뜻·음 용 룡

총 16획 · 부수 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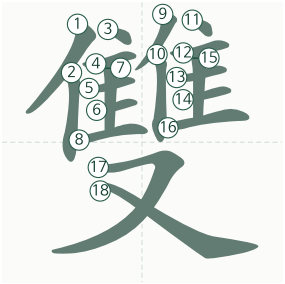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龍/

雙

뜻·음 두·쌍 쌍

총 18획 · 부수 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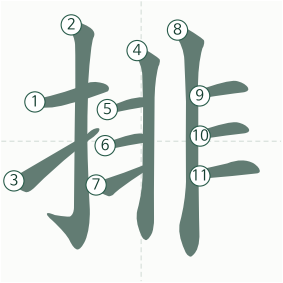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雙/

排

뜻·음 밀칠 배

총 11획 · 부수 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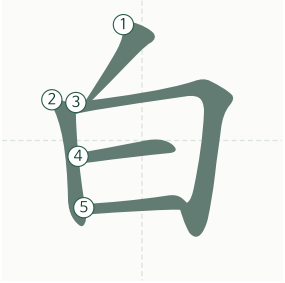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排/

白

뜻·음 흰 백

총 5획 · 부수 白





hanja.wordrow.kr/한자/白/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